

페인트, KCC·벽산 오염물질 범벅

환경과학원, 페인트 13.2%에 벽지·바닥재까지 ... 톨루엔 최고 21배

실내 건축자재 일부제품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.7%에 달하는 257개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7월2일 발표했다.

257개 건축자재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이 244개로 9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톨루엔(Toluene) 13개,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 1개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.

바닥재 1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에서 중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축자재에는 KCC, 벽산페인트 등 메이저들의 생산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VOCs 방출량은 톨루엔이 최고 1.727mg/m³로 2011년 기준치 0.080mg/m³ 대비 21배 이상,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최고 38.758mg/m³로 2006년 기준치 4.0mg/m³와 비교해 9.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페인트는 1212개 중 13.2%인 160개가 방출기준을 넘어 초과율이 가장 높았고 벽지 5.7%, 바닥재 5.5%로 뒤를 이었다.

<화학저널 2013/07/02>